

민간펀드 출시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될 듯
- 3,30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 계획 -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국민은행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펀드 출시를 계기로 민간재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 산자부는 금년초 금융권과 발전차액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출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시중은행, 보험, 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였고,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마련된 태양광 발전 등 전기 생산설비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 펀드 개요 (국민은행 주도, '07.5.21 출시)

- 펀드명 : 신재생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Blind형)
- 규모 : 3,300억원 내외(Capital Call방식)
- 존속기간 : 15년(필요시 2년 연장)
- 수익율 : 신탁보수(0.56%) 공제 후 연 7.0% 이상
- 대상사업 : 발전차액적용사업(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위주)

- 기존, 신재생에너지 상업용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은 장기저리의 융자제도를 주로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상업용 발전설비 신규 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보급용자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산자부는 향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기조를 정책자금 의존에서 금융기관 project financing 등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견실한 보급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년 3월초 신재생에너지 보급용자 사업에 건설 후 장래에 발생할 발전차액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한·중·일, 수소에너지 국제표준 공동대응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세미나 8일 서울 팔래스호텔서 개최

친환경 미래형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국제표준화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치열히 경쟁 중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중·일 국제표준 공동대응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세미나를 6월 8일(금)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하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 중국표준협회가 “수소에너지 표준화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연료와 수소감지기 국제표준화 회의가 6월 6일(수)~6월 9일(토) 같은 곳에서 개최되었다.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으로 수소의 제조·저장·이용에 관한 3대 핵심기술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년간 9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료전지자동차”와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의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표준화 회의는 수소연료와 수소감지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수소연료 표준화는 연료전지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소감지기는 수소시스템의 누출수소를 감지하는 장치로 세부규격을 정하는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 수소연료 및 수소감지기 분야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 (ISO TC197/WG12 & WG13)

- ISO/TC197: 국제표준화기구 / 수소에너지 기술위원회
- ISO TC197/WG12: 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연료 품질 기준 개발
- ISO TC197/WG13 : 수소 시스템에 적용될 수소감지기 표준 개발

이번 동북아 수소연료전지분야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중·일 3국간 기술교류와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번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09

년에는 ISO/TC197(수소에너지)와 IEC/TC105(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총회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윤종구 에너지물류표준팀장은 “향후 태양광, 풍력분야 등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전반에 대한 동북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다.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별 특성화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 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공대 혁신의 전담기구로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대학 특성과 지역산업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가 기획하고 산업기술재단(이사장:정준석)이 평가관리를 담당한 금번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에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70% 이상인 총 109개 대학이 신청해 대학의 혁신의지를 기능할 수 있었으며 1차 권역별 평가(5.16~22), 2차 권역통합평가(5.30)를 통해 특성화 전략의 적합성, 교육프로그램 개선의 타당성, 대학의 혁신 추진의지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50개대학을 선정하였다.
- 산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50개 공과대학별로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투자해 공학교육 혁신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50개 센터 중 5개의 거점센터를 선정, 유형이 유사한 대학간의 공동혁신사업을 위해 각 2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산자부는 7.13(금, 잠정) 50개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참여한 가운데「공학교육 혁신포럼 2007」를 개최,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 공학교육혁신위원회 발족식 및 공학교육 혁신유공자 포상 등의 행사를 통해 공학교육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며, 특히, 앞

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공학교육 혁신, 산학협력을 잘 하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우대 받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금번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공학교육 혁신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한전-광진공, 해외광물자원 개발 협력 MOU체결

- 한국전력(사장 이원걸)은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이한호)와 6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해외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업무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창사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거행된 본 서명식에는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양사는 양해각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사업 공동추진, 해외사무소, 현지법인 등 해외 인프라 공동 활용, 기술관련 인력의 적극지원 노력 등을 약속했다.
- 한전은 이번 MOU체결로 양사간 해외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이해를 같이 하고 실질적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 해외사업 추진과 광물자원 자주개발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한전은 지난 5월 결성된 에너지 공기업 CEO 클럽에서 광진공 등 4개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해외사업 공동진출 전략 등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수원, 영광솔라파크 준공

- 영광 성산리·계마리 일대 1.8만평에 1.25MW태양광 발전설비-

한국수력원자력(김종신·이하 한수원)은 30일 전남 영광군 성산리 및 계마리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1만

8000여평 부지에 1,25M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인 영광솔라파크를 1단계 준공했다.

총 233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 3월 3MW규모로 완공되는 이 발전소는 연간 854톤의 석유 대체효과와 연간 2,123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영광솔라파크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청소년 에너지캠프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홍보하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신 사장은 이날 1단계 준공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한수원의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라며 “2015년까지 추가로 140만kW발전설비를 추가로 확충해 한수원내 비중을 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와 별도로 고리 풍력을 고리원전 내에 750kW급 풍력발전기를 올 연말 준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태양광발전, 전담대 등을 설치해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연계 에너지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남동발전 분당복합, 알제리 에너지자원 실무협약의단 방문

5월 23일 알제리 에너지자원 실무협약의단은 알제리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 전기가스공사, 신에너지기구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에너지광물부 에너지국장 MEKKI ABDELKADER외 7명)으로 양국간 에너지자원분야 협력과제발굴을 위해 방한중 에너지관련 시설 산업시찰에 일환으로 분당복합화력발전처(처장 김성섭, 위원장 박종옥)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아부델카데르(MEKKI ABDELKADER) 에너지광물부국장등 방문일행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설비 현황과 우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발전운영기술에 대한 현황소개와 함께 중앙제어실 및 현장 설비를 견학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전력기술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발전설비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라인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등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내내 친밀한 분위기에서 방문을 마쳤다.

동서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식 등록

- UN산하 GRI 및 글로벌 콤팩트에 등록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정태호)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지난 6월 4일 UN산하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글로벌 콤팩트에 정식 등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서발전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선진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코자 지난해 8월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UN산하기구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GRI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됐으며, 동서발전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를 파악,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노력 및 성과를 상세히 담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글로벌 콤팩트가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경영을 기업 생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 제주지역 전력 수급 획기적 개선 - 남제주화력 3,4호기 준공

제주지역 전체 전력 공급용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 제주도 최대 발전설비 (총 20만 kW, 10만kW×2기, 연간 발전량 약 15억 kWh) 남제주화력 3,4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제주도의 전력공급이 더욱 안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한국남부발전(株)[사장 김상갑/ 이하 '南電']은 국내 최남단 발전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남제주화력발전소[소장 정정용]에서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제주지역 기관 단체장 및 협력사 임직원,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남제주화력 3,4호기 준공식을 가졌다.

남제주 3,4호기 준공은 '06년 제주도 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2002-2011),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4호기의 준공으로 南電은 제주지역 전체 전력의 46%를 공급하게 되어 제주지역 전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전자동 기동,정지 및 자동급전 운전시스템 등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저유황 연료유 사용, 탈황/탈질설비 강화로 청정지역 제주의 환경 보호 및 남제주화력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 발전소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자동급전운전시스템은 원거리에서 전력 출력을 조절하는 최첨단 발전 시스템이다.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지난 2004년 6월에 착공, 공사비 3,379억원이 투입되어 3호기가 '06년 9월에, 4호기가 '07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총 2년 10개월만의 건설 기간을 마치고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건설 기간 동안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 조건 및 공사 부지 내에서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난관이 있었으나, 남전 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당초 예정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은 이번 준공행사를 계기로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남제주화력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생활정보관 건립 지원, 소득증대, 공공시설 및 육영사업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향후 1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준공행사는 기념식 및 준공기념테이프 절단, 현장순시, 기념 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 이번 건설에 공로가 큰 南電 건설처 김광규 과장 등 15명에게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건설처 신춘호 과장 등 17명에게 사장상 수여되었다.

중부발전-환경재단, '아토피' 사업 협약체결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장섭) 6월 1일(금)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스룸에서 환경재단(대표 최열)과 '아토피 치료지원 및 생활환경개선'(이하 '아토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올해 초 중부발전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특화사업으로 '아토피' 치료지원사업(사업명 : Free from Atopy)을 선정하면서 '아천사(아토피와 싸우는 천사들을 도읍시다)'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환경재단과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부발전 정장섭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발전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 '아토피' 사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친환경, 친인간'의 기업이념을 적극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파워-포항시MOU

포스코파워는 5월 9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 건설을 위한 실무협약(MOA)을 체결해, 포스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날 MOA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승우 포스코파워 사장, 류경렬 RIST 원장, 최병조 포스코 사장, 최규성 포철산기 사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A는 지난 3월 30일 경북도·포항시와 포스코의 발전 자회사인 당사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올 10월 포항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에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착공,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연간 100MW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사업적 제휴를 통해 국가첨단에너지 집적지 육성을 위해 진행 중인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연료전지사업을 추가해 포항 신항만을 신재생에너지의 차세대 주자인 연료전지의 국제적 생산기지로 육성하게 된다.

대한전선, 콩고 유선전화 서비스 개통

대한전선(대표이사 사장 임종욱)이 콩고에 설립한 유선통신업체가 지난 5월 23일 서비스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통신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현지 합작법인 CKT지분 51%를 인수해 콩고 통신청과 합작으로 유선통신사업에 진출했다. 그 동안 콩고의 수도인 킌사샤를 중심으로 300km에 이르는 광통신 백본망(backbone network, 간선망)을 건설하여 지난 23일(현지기준) 개통식을 갖고 유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서비스 개통식에는 콩고 재경장관과 통신청장 등 현지정부 주요 각료들이 대거 참석할 만큼 유선전화망이 전무한 실정이었던 콩고에서 이번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 회사는 최근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앞서 회사명을 Standard Telecom으로 변경했다.

콩고의 수도 킌사샤(인구 800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Standard Telecom의 유선전화사업은 현재 유선전화망이 전무한 콩고에 CDMA WLL 기술을 접목한 Fixed Phone 기술을 도입한 사업으로 이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면적이 넓은 신흥 발전 국가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 기술은 기지국에서 가입자까지 일일이 동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CDMA 방식의 무선을 이용해 연결하는 기술로 이러한 해외 첨단 통신네트워크 사업은 대한전선을 비롯한 협력업체에게 수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나라 IT기술 수출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차적으로 수도권에 광백본망을 건설한 Standard Telecom은 주변 지역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콩고 전역(한반도 11배)으로 광통신 백본망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인구 6천만의 아프리카 신흥 발전국 콩고는 아프리카 최대의 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정치상황이 안정화되어 성장 잠재력이 크며 또한 주변 국가로 사업확장이 가능한 나라”라며, “향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콩고 전역으로 통신 서비스를 확대해갈 예정이며, 인터넷 및 망임대 사업 등 부가가치 있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실시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에서 무선통신사업 및 인터넷망 임대사업을 운영

하고 있는 대한전선은 아프리카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로 지난 2000년 남아공에 M-TEC을 설립, 성공적인 종합전선회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전선은 이러한 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업을 성장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5월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국내/해외 전시회에 각각 참가하였다. 국내에서는 5/16(수)~18(금)에 개최된 2007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해외에서는 5/23(수)~25(금)에 개최된 2007 일본전설공업전에 각각 참가하였다.

대구 EXCO 에서 개최된 2007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고효율인버터를 출품하여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다.

일본 최대의 중전기 종합박람회인 일본전설공업전은 동경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현대중공업은 2006년 보다 참가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몰드변압기, 전동기, 중저압차단기, 인버터, HIMAP등 전 사업부문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소개하고 일본 업계의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에도 멕시코 Expoelectrica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중남미 시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시장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